

“폭우와 사투, 전쟁 같은 밤...이젠 비만 오면 두렵다”

또 침수 피해...광주 신안동 가보니

“또 전쟁같은 밤을 보냈어요. 이 동네 사는 게 죄죠.”

4일 오전 7시께 찾은 광주시 북구 신안동 서암대로 100번길 마을 주민들은 전날 밤을 떠올리며 “이제 비만 오면 두렵다”고 몸서리를 쳤다.

용봉초등학교, 인근 자녀의 집, 2층 주택으로 몸을 피해 밤을 지냈던 주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로 돌아왔지만 폐허를 방불케하는 모습에 망연자실했다. 하룻밤 사이 쏟아진 비에 마을 어귀는 쓰레기 더미가 골목마다 나뒹굴고 있었고 흙탕물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 곳 주민들은 지난달 17일 하루 강수량 426㎜라는 기록적인 폭우에 세간살이가 온통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한 달도 못돼 ‘일 강수량 195㎜’의 비로 또 침수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지난 밤을 “악몽같았다”고 회상했다. 불어난 물에 떠밀려 온 쓰레기들이 도로 하수구를 막을까봐 밤중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도나도 뛰쳐나와 팔을 걷어붙이고 밤새 쓰레기를 치웠다고 했다. 그럼에도 야속한 빗물은 순식간에 60여cm 높이를 차올랐고, 1시간 넘게 도로를 뒤덮었다.

주변 빌딩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장 가림막에 막힌 빗물이 주택 쪽으로 흐르면서 비상 사태였다고 회상했다. 한 주민은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화분으로 현관을 막고 1층 가재도구를 2층으로 올리느라 하룻밤을 꼬박 썼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침수 피해 복구조차 못한 주민들은 어디 서부터 청소해야 할지 몰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

지난번 수해 복구도 다 안됐는데 다시 침수되자 주민들 망연자실 하수구 막힐까 쓰레기 치우고 가구 2층 옮기느라 밤 꼬박 새워 “옹벽 세운 뒤 되레 물 빠짐 막아” “언제까지 악몽 되풀이 되나” 한탄

다.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조규순(81)씨는 지난번 폭우로 가게 뒤편 담벼락이 무너졌고 유리창도 깨진 그대로인데 다시 빗물이 넘쳤으며 한숨을 쉬었다. 가게 안 자전거 5대는 흙탕물 범벅이 됐고, 2대는 빗물에 떠내려가서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주민 박대순(66)씨는 “오늘 내일 중으로 장판, 벽지 공사를 하려던 것도 미뤄야겠다. 다시 진흙부터 빼내야 할 판이다”며 “저번달 침수 때 갈비뼈가 부러져 임원중인 어머니가 곧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 집으로 모셔올 엄두가 안 난다”고 말끝을 흐렸다.

르노삼성코리아 자동차 매장 직원들도 매장 내에 어지럽게 진흙이 들어차 있는 모습에 허탈해했다. 여름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보니 전날 밤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차 매장이 초토화 돼 있었다는 것.

직원 김양한(27)씨는 “지난달에도 침수 피해로 영업을 못하고 손님들을 돌려보내며 진흙을 파내고 침수된 장비와 부품 등을 버렸는데, 또 반복됐다”며 “새로 하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도 헛수고가 됐다. 공사를 다시 시작할 엄두도 안 나는 데다 보험 처리 비

용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서방천 옆 마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가 올 때마다 도망치고, 가전제품 등을 다시 새로 사야 하는 등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냐는 울분을 토했다.

주민 조항순(여·82)씨는 “매년 비가 올 때마다 피하고 살아야 하는 게 원망스럽다. 어제도 비가 내리니까 하천만 쳐다봤다”며 “지난달에도 낮에는 청소하고 밤에는 팔 집에서 자는 걸 반복했는데, 아직 복구도 하지 못한 채 또 침수되니 허탈해서 말도 안 나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광주시와 북구가 129억원을 들여 만든 옹벽과 방수막도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당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역류를 막겠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방천 개수공사’로 만든 옹벽이 오히려 빗물이 빠져나갈 길을 막아 홍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광주시 등은 원인 분석에 나섰다.

광주시 등은 국비 4억원, 시비 129억 9900만원을 투입해 신안교부터 임동까지 광주천 일대 하천 1.14km구간에 식생옹벽·전석을 쌓고 투명홍수방어벽을 설치했었다.

신안동에서 60년째 살고 있는 김선태(61)씨는 “1989년도 무등경기장 자재가 빗물을 막아서 역류한 것 말고는 큰 피해는 없었는데 최근에 1.5m 옹벽이 들어서면서 신안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방어벽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마을에 가득차 침수 피해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안동 주민들은대책위원회를 꾸려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절차에 나선 방침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4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서방천 일대의 주택의 담벼락이 폭우로 줄줄이 무너져있다.(위)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시장 인근 1층 상가가 집중폭우에 침수됐다. /나명주 기자 mjna@



지난 3일 밤 사이 내린 폭우로 함평군 함평읍 5일 시장과 읍내 삼정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4일 오전 시장 주변 골목 곳곳에 물에 쓸려온 플라스틱 통, 아이스박스, 야채 박스, 전자기기 등 각종 집기류와 생활 폐기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배수펌프 무용지물·예비펌프 뒤늦게 가동...함평 침수 피해 키워

함평읍·5일시장 상가 물에 잠겨 각종 집기류 등등 ‘쓰레기장 방불’ 주민들 “군 안이한 대처” 잇단 지적

함평에서는 전날 257.5mm의 폭우가 내리면서 함평천 인근 함평읍과 함평 5일 시장 상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함평지역 6개의 배수펌프장이 모두 작동을 했지만, 극한 폭우에 ‘빗물 배수 펌프’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지난달 비 피해를 입고도 부족한 배수펌프를 보완하지 않고, 예비 펌프도 뒤늦게 가동하는 등 안이한 조치로 피해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함평에는 전날 내린 비로 주택 50가구와 상가 46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함평군은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빗물배수펌프장을 모두 가동했으나, 하천 유량이 배수 펌프의 허용 용량을 넘어서면서 배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함평에는 총 6곳의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이번 집중 호우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5일시장펌프장(처리 능력 분당 174.2㎥)과 나산펌프장(분당 150㎥), 신촌펌프장(분당 45.6㎥), 원고막펌프장(분당 7.5㎥), 쌍교펌프장(분당 7㎥), 우시장펌프장(분당 4.5㎥) 중 배수 능력이 높은 5일시장·나산펌프장은 2021년 설치된 신형 펌프장이지만, 신촌(2011년 설치), 쌍교(1999년), 우시장(1992년), 원고막(1985년) 펌프장은 설치한 지 수십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5일시장 인근 영수교의 경우 밤 10시께 기준으로 분당 1만 9417㎥의 물이 흘러 펌프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배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함평군 원고막교 일대는 밤 11시 30분 기준 유량은 분당 4만 1368㎥까지 올라가 홍수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함평군 측은 5일시장 펌프장의 펌프 3대 중 예비 펌프를 제외한 2대의 펌프만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밤 10시 30분께 펌프장이 1m 높이의 물에 잠기고 나서야 펌프장을 관리하는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펌프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예비 펌프를 마저 가동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함평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내 놓고 있다. 지난날에도 하룻밤에 324.7mm의 비가 내려 함평읍, 손불면 등이 침수됐는데, 그에 맞춰 배수 펌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미리 5일시장 펌프를 예비 펌프까지 3대 모두 가동했다면 피해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하게 많은 비가 내려 펌프의 허용 용량을 넘어선데다, 인근에서 우수관 공사 등을 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5일시장 쪽으로 몰렸다”며 “앞으로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라는 데 맞춰 펌프장에 비상용 펌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함평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현장점검 뒤 “피해 분야와 지역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내용과 대책을 도민에 적극 알리고 국비 지원 외 전남도 자체 지원 방안을 확인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